



工所權保護파리協約外交會議

—來年 9月 28日 케냐서開催—

지난 10월에 제네바에서 열린 國際工業所有權保護에 관한 파리協約同盟國臨時總會에서는 現行파리 協約改正外交會議를 1981年 9月 28일부터 4週間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開催하기로 決定하였다.

同會議에서는 開催場所로서 先進工業技術國側에서는 제네바를 提議하였으나 77個그룹國과 케냐政府의 合勢가 主효하여 케냐로 落着되었다.

來年會議의 議題는 論議되지 않았으나 다만 올림픽마크의 保護問題 즉 올림픽마크의 商業的使用規程問題가 提起되어 이 문제도 내년회의의 開會 前週에 討議하기로 합의 하였을 뿐이다.

기니, WIPO加入書寄託

—11月 13日字發效—

기니政府는 지난 8月 13日 世界知的所有權機構(WIPO) 設立協定加入書를 寄託하였다.

1967年 7月 14日 스톡홀름에서 調印된 WIPO協定은 기니에 대하여 1980年 11月 13日字로 發效한다.

(WIPO 提供)

亞·太工業所有權保護워크숍

—WIPO·UNDP·比政府共同開催—

亞細亞·太平洋地域 工業所有權制度活用效率化에 관한 워크숍이 지난 4月 마닐라에서 開催되었다.

WIPO主催로 필리핀政府와 유엔開發計劃(UNDP) 後援으로 開催된 이번 워크숍은 第2回(필리핀發明祭 및 第14回 필리핀 發明競進大會와 때를 맞추어 열렸다.

韓國, 필리핀등 亞細亞·太平洋地域의 17個國이 參加한 이번 워크숍은 亞太地域 一部國들이 當面하

고 있는 發明과 關聯된 問題들은 물론 土着發明家나 技術者들을 돕기 위한 法制, 政策등 여러가지 有益한 情報交換機會가 되었다는 등 9個項의 決議文을 採擇하였다. (WIPO 提供)

阿洲新生國知的所有權세미나

—WIPO·OAU·ECA 共同開催—

WIPO는 아프리카團結機構(OAU)와 유엔아프리카 經濟委員會(ECA)의 共同協調로 최근 아프리카의 비소에서 아프리카新生國知的所有權세미나를 開催하였다.

知的所有權이 經濟發展에 어떻게 寄與하는가를 알리고 WIPO의 開發計劃을 周知시키기 위해 計劃된 이번 세미나에는 앙골라, 케이프 베르데 및 기니비소등 3個國이 參加하였다. (WIPO 提供)

實用新案制度廢棄論

—日 發明協, 研究會構成—

實用新案制度를 어느나라보다도 有益하게 活用하여 온 日本特許廳은 그 改廢問題性을 發明協會로 하여금 研究토록 委囑하였다.

實用新案制度調査研究會의 이름으로 構成된 同研究會는 來年 3月까지 報告書를 提出케 되어 있으며 實用新案制度는 1905년에 創設되었다.

日本이 오늘날의 工業所有權多出願 또는 技術國으로 發展하는 데에는 同制度의 活用이 寄與한바 크며 同制度의 廢棄에는 兩論으로 나뉘어 있다.

吸水性纖維開發

—各國纖維企業이 競爭—

國際적으로 纖維生產企業들은 吸水性素材의 開發에 注力하고 있으며 특히 日本에서는 몹을 이루고 있다.



日本企業中에서는 倉敷紡績會社와 東洋紡績會社가 瞬間吸收加工한 綿素材의 擴大販賣에 안간힘을 쓰는 가 하면 東洋紡績과 쿠라제會社は 綿 또는 吸水性을 지닌 폴리에스터素材를 개발하였는데 그 加工法은 極秘로 되어 있으나 대체로 脫脂綿과 비슷하게 가공한다는 것만이 알려져 있다.

東洋紡績에서 개발한 다이어 스퀘아트加工法은 불방울의 滴下法에 의한 吸水速度가 一般品の 4分の 0.3秒 以下에서 綿의 切片을 浸水시키되 浸透速度는 바인테法으로는 一般品보다 9倍 以上の 結果를 얻을수 있다는 것이다.

또 倉敷紡績의 이프로 스퀘아트加工法은 이탈리아의 바세티會社와 技術提携한 것으로서 스포츠웨어, 타올 등으로 팔리고 있다.

그러나 이들 어느 纖維도 폴리에마에서의 改質이 아니라 吸水性은 지나쳐 大氣中の 水分을 吸收하는 吸濕性은 지니지 못하고 있으므로 各合纖企業들이 天然纖維에 가까운 吸濕性纖維를 개발하는 것이 오랜 꿈이 되어 있으며 이 部門의 개발에 注力하고 있는 것이다.

컴퓨터特許再實施權契約

—IBM과 電電公社가 協商—

美 IBM會社와 日本電電公社는 컴퓨터의 相互保有 特許權에 대한 크로스라이센스契約를 推進할 豫定이다.

契約原則인즉 電電公社는 IBM의 既存特許의 實施特許와 더불어 日本國內關係企業에 機器의 製造權을 許諾하는 한편 電電公社는 IBM에 獨自開發한 單獨特許 또는 日本企業과의 共有特許의 實施權을 허여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條件은 電電公社가 生産企業이 아니므로 이러한 內容의 계약은 電電公社가 必要하기 때문이다.

IBM特許에 대한 日本企業(6個會社)과의 既存契約는 更新期日이 12月로 迫頭하여 年内로 IBM에 意思



를 提示하게 되어있다.

IBM과 日本企業 6社와의 크로스라이센스契約은 1960年 12月에 締結하여 每 5年마다 更新하게 되어 있다.

建設業에서도 特許出願

—類別 多樣, 數도 急增—

國內外를 莫論하고 建設業은 土木·建築의 都給이 主業으로 되어 있으며 特許의 出願登錄은 製造業種 企業 또는 研究所의 專擔業으로 어져 왔으나 最近 外國에서는 建設業種 企業에서도 工業所有權의 出願登錄이 急增하고 있다.

이러한 傾向은 日本에서 顯著하며 그들이 뜻하는 바는 高度한 建設技術力開發이다. 今年 1月부터 6月까지 半年동안에 日本의 鹿島建設會社は 特許, 實用 新案만도 137件이나 出願했으며 類別로는 土木, 建築에 관한 處理, 操作, 輸送 化學, 冶金, 纖維, 機械, 物理, 電氣 등 廣範圍하다.

同社뿐아니라 各建設企業들이 앞을 다투어 工業所有權出願에 注力하고 있음은 먼 남의 나라의 일이 아닌 것이다.